



애들은 두고 가라 (출 10:10-11)

- 10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 11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오늘날 교육현장의 실상

현재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는 심각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를 제한하고 공립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 다수 통과됐기 때문이다.

그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부모동의 없이 성 정체성 상담제공 가능
2. 공립학교 교직원에게 성 소수자 의무 교육 실시 및 성 소수자 정체성을 인정치 않는 학부모 프로필(일종의 블랙리스트) 작성



이 법의 통과를 반대하는 부모들은 헌법상 명시된 ‘자녀에 대해 알 권리, 자녀를 보호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위 ‘아동보호법 주민발의안’을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키 위해 오렌지카운티 한인 교계를 중심으로 대대적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만약 아동보호법이 상정/통과되면

1. 공립학교, 대학교 등에서 남녀간 성별에 따른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 사용 의무화
2. 학교가 자녀에게 성전환 또는 성별, 이름 변경 등을 권유할 때 반드시 학부모에게 먼저 통보, 학부모 동의 없는 성전환 시술을 금지
3. 미성년자 성전환 의료 서비스에 세금 사용금지가 가능해진다.

: 정말 치열한 ① _____ 이 아닐 수 없다.

세 번째 타협안

이제 전 애굽지역에 재앙이 쏟아지자, 바로는 모세에게 세 번째 타협안을 제시한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w.10-11)

‘좋다. 너희 어른들은 애굽을 떠나도 좋다. 그러나 어린 것들은 두고 가라’는 것이다. 계속되는 재앙으로 혼이 난 바로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고 있으려고 한 것은 다름 아닌 ② _____ 들이었다.



오늘날 선교현장 역시 어린이 싸움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카톨릭, 이슬람 등은 어린이에 대한 교육과 양육 ③ _____을 실행하여 다음 세대를 이용하고 있다. 초창기 한국에 복음을 가지고 온 선교사들에게 어른 전도는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며 동시에 학교도 세워가며 효과적인 선교사역을 펼치게 되었다.



<배재학당>



<경신학교>

아펜셀러는 배재학당을, 언더우드는 경신학교를 세웠고, 이어 여성교육기관인 이화학당과 정신여학교 등이 세워졌다. 그것이 대한민국 근대교육의 시작이었고, 이후 일제강점기 전까지 25년간 약 800개의 미션스쿨이 전국에 세워졌다. 이 학교들을 통해 수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배출되었고, 교육을 중요시하는 전통이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바탕에 성장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진 자 되어 지금 ④ _____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캄보디아 예수마을

지난달 3월 캄보디아 감봉츠낭 예수마을에서는 '비전스쿨' 준공식이 있었다.

4/14 윈도우' 비전에 동의하고 섬김의 서약으로 헌신한 당진동일교회가 예수마을에 비전스쿨(유치원) 공사를 맡아 완공하였다. 앞으로 이곳서 성장하는 어린이들이 킬링필드였던 자신들의 조국 캄보디아를 힐링필드로 바꿔 놓을 그 날을 꿈꾸며 준공식을 하였다.



도자기를 빚는 마을

캄보디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팔에 붉은색의 실을 감는 전통을 지켜왔다. 액운을 막아준다는 일종의 미신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줄을 끊어야 하는데 스스로 끊지 못해서 선교사에게 와 끊는다. 우리가 저들의 우상을 끊어 주어야 한다. 캄봉츠낭은 '도자기를 빚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이제는 그들의 다음 세대를 ⑤ _____으로 빚어내는 복음마을이 될 것을 꿈꾼다. 이에 기도와 물질로 협력한 모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적용과 기도]

❖ 오늘 배운 내용을 삶 속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 한국과 미국의 교육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에게 그릇된 성 정체성과 가르치고, 교육에서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배제/해체시키려는 시스템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기도합니다.
- 교육현장과 선교현장의 Key는 어린이 곧 다음세대입니다. 다음세대가 살아야 미래가 있습니다. 다음세대를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세우는 거룩한 비전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 프라미스교회가 섬기고 후원하는 캄보디아 예수마을에 세워진 비전스쿨, 탄자니아 우물선교로 섬기는 수많은 학교들, 중남미의 414W 선교로 세워진 학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